

## 아세안 포괄적 회복프레임워크(ACRF)와 신남방정책플러스

이요한 (LEE Yohan)

코로나19(COVID-19)의 확산으로 아세안은 경제성장률의 대폭 감소, 무역과 해외투자(FDI) 유입의 축소, 금융 시장 및 고용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했다. 아세안은 코로나 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차원의 아세안 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라는 출구전략을 마련했다. ACRF는 ① 보건 시스템 증진 ② 인간안보 강화 ③ 아세안 시장 잠재력 극대화 및 경제통합 확대 ④ 포용적 디지털 전환 ⑤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미래를 향한 전진 등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2017년부터 아세안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남방정책을 수행해 왔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존 외교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2020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7개의 전략방안을 포함한 신남방정책플러스(New Southern Policy Plus) 전략을 발표했다. ‘코로나19의 발생’과 ‘신남방정책플러스’라는 2개 축(軸)은 한·아세안 관계의 접근 방식의 다양성과 학문적 수요를 무한히 발생시킬 것으로 보인다. 본 발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아세안 협력방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새로운 연구 수요와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했다.

한국외대 국제관계학과에서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주제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7~2014년 라오스 수파누봉(Souphanouvong)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2014~2016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 연구원으로 메콩(Mekong)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재 연세대·한국외대·사이버 외대에서 아세안 관련 과목을 강의하고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일본의 대 메콩 외교 전략과 협력 거버넌스(2020)”, “ADB와 AIIB의 경쟁과 공존: ASEAN 개도국 인프라를 중심으로(2018)”, “아세안 경제공동체와 개발격차 해소(2017)” 등이 있다.

일시: 2021년 05월 11일 (화), 12:00-13:0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210호)